The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 97 (2025): 158-186
https://doi.org/10.24333/jkots.2025.31.3.158

전도서 관점에서 본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삶의 의미*

윤형(장신대)

1. 들어가는 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 소위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말한다. 이것은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등장한 낱말인데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고도의 기술사회를 의미한다.[1]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전문가도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과연 그 사회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해왔던 유토피아적인 세계일까? 유토피아(Utopia)는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상향이다. 미래에는 급속한 기술발전으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B5A17034740)

1 클라우스 슈밥,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옮김),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109. 원제는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rown Currency, 2017). 세계경제포럼은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그것을 디지털 혁명에 기반을 두면서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로 정의했다.

www.kci.go.kr

로 말미암아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노동도 상당부분 완전 자동화 또는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정말 사람의 노동이 필요 없는 그런 유토피아적 세상이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노동에서 벗어나길 원했는데 실제로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과연 노동 없는 그 세상은 행복할까? 노동을 하지 않는 삶이 의미가 있을까? 또 생명 및 유전공학 기술의 발달로 생명을 연장함으로써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2] 그럼 죽지 않으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할까? 바로 이것이 고도의 과학 기술사회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삶의 딜레마(Dilemma)이다.

아주 오래전 전도서 기자는 자신이 이와 유사한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해있다고 고백한다. 전도서에 따르면 그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처럼 보인다.[3] 그러나 그는 삶을 돌아보며 헤벨(הֶבֶל/헛됨)이라고 외친다.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이트론/יִתְרוֹן)[4]한가? 라고 질문한다(전 1:3). 기자는 이트론(יִתְרוֹן/유익)이라는 용어를 노동을 투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잉여분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렇게 그는 삶의 무의미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맞이할 미래사회에서도 대두될 것이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삶의 공허함, 노동의 유의미성, 그리고 죽음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 인간은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 의도했

2 이노우에 도모히로, 「2030 고용절벽 시대가 온다」 (김정환 옮김), (서울: 다온북스, 2017), 45. 재인용. 커즈 와일(Ray Kurzweil)은 치료법 등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앞으로 15년 이내에 인간은 매년 1년 이상 수명을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요컨대 앞으로 약 15년 후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면 평생이 가도 나이가 수명을 따라 잡지 못하게 되어 사고로 죽지 않는 이상은 1000년이든 2000년이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3 김용규,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서울: 후머니스트, 2013).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도 만년에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면서 한 신부에게 24개의 질문을 던졌다.

4 히브리어 이트론은 명사형으로 남는 것(outcome), 수익(profit, benefit) 등의 뜻이 있고, 동사형 야타르(יתר)는 남다(remain over, be left over)란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트론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 즉 영구한 가치를 뜻하기도 한다.

www.kci.go.kr

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삶의 만족감도 그만큼 높아질까? 어쨌든 그런 기술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인간의 능력은 극대화되는데 그에 비례해서 삶의 만족감도 올라갈지는 의문이다. 향후 급속히 발전하는 IT 기술이 제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인간성 상실과 소외일 것이다.[5]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삶의 허무감(헤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인 또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이트론/יִתְרוֹן)할까? 라고 질문할 것이다. 따라서 삶 속에서 참 이트론을 찾는 것, 이것은 전도서와 4차 산업혁명시대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

2. 선행 연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논문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자신의 책에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과학기술과 그것을 맞이하는 사회가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6] 그러면서 이 극적인 과학기술의 변화를 인간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다시 한 번 고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반성택과 김종규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 인문학의 응전'이란 책에서 노동, 시장, 인간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담론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하였다.[7] 여

5 박현길, "IT기술의 두 얼굴", 「마케팅」 51(10) (2017년 10년), 52. 인간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발전시킨 과학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더 바쁘게 만든다. 점차 사람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이로 인해 인간성 상실과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6 클라우스 슈밥, 윗글.

7 반성택, 김종규, 「4차 산업혁명의 도전」 인문학의 응전 (고양: 학고방, 2020).

www.kci.go.kr

기서 그들은 과거 산업혁명의 역사를 고찰하면서 과학은 역사를 움직이는 주 요소가 아니라 그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산업혁명을 인문학과 함께 보도록 권고한다. 김성동은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이란 책에서 과거에 있던 세 번의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며 인류의 미래에 대해 서술한다.[8] 인상적인 것은 IT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중산층이 몰락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이다.[9] 이에 대해 학자들은 기본소득제도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공동체가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술발전의 성과를 사회구성원들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연구들은 주로 기술 및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과제를 살펴보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지혜문헌인 전도서를 중심으로 삶과 노동, 죽음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 나타날 문제점을 신학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지혜론적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편 주제와 관련하여 신학적으로 고찰한 연구 자료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김창대는 삶과 관련하여 전도서의 중심 단어인 헤벨의 아이러니 기능을 통해 전도서 기자가 독자에게 신중한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0] 이 아이러니 기능은 전통적인 지혜안에 있는 신중함의 덕목을 끌어내어 헤벨의 상황을 초래하는 이기적 욕구를 제어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 위해 신중할 것을 교훈하는데 있다. 즉 신중한 삶이란 자신의 동기를 살펴서 이기적인 자세를 제어하면

8 김성동, 「4차 산업혁명과 인간」 (고양: 연암서가, 2018).

9 윗글 324. 소위 압정형 사회가 됨으로써 극단적인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0 김창대, "전도서에서 헤벨과 신중한 삶", 「장신논단」 50집(5) (2018년 12월), 39-66.

www.kci.go.kr

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실천적 지혜의 삶이다. 노동과 관련하여 김순영은 전도서에 나타난 노동은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헤벨(부조리하고, 수수께끼 같으며, 덧없는)의 삶이지만 먹고 마시며, 노동으로 즐거워하는 소박하고 심원한 기쁨이야말로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넘어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촉진제라고 주장한다.[11]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일의 성취와 성과주의에 얽매인 노예의 삶을 살지 않도록, 나아가 하나님의 선물인 소박한 일상의 기쁨을 망각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권고한다. 한편 구자용은 전도서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는 죽음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전도서의 서두와 말미뿐만 아니라 전도서 전체의 핵심적인 두 사상인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와 카르페 디엠(Carpe diem)을 연결시켜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2]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결정적인 죽음의 그림자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하심이다. 즉 이것을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되고 현재 살아있음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의 연구들은 주로 본문 중심으로 주석하면서 해석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현대의 시사성 주제를 과거의 성서지혜와 연결시켜 해석하려는 사회소통적인 독특성이 있다.

---

11 김순영, "전도서의 일상과 노동의 관점, 전도서 2:18-26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2집 (2018년 4월), 22-44.

12 구자용,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엠(Carpe diem)! 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의 죽음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18집(1) (2012년 3월), 82-104.

www.kci.go.kr

3. 본론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전도서에 나타난 세 가지 개념에 비추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삶을 고찰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모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 노동 그리고 죽음의 문제다. 여기서 과연 참 이트론(유익)을 찾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우선, 삶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 모든 생활조건이 편해지는 기술사회에 들어가서도 허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전도서를 통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노동 문제로 노동은 인간의 본질적 과제로서 과학기술을 통해 이것을 지나치게 줄이면 여가 중독에 노출된다. 이에 어떻게 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죽음 문제인데 과학기술로 죽음을 아무리 연장해도 그것 또한 무의미할 수 있다. 이에 그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전도서가 어떻게 권고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논문의 연구방법은 신학적 공동체를 인식하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최종 본문을 기준으로 하는 정경적 관점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와 전도서의 지혜를 비교 고찰하는 것이다.

1) 삶에 대하여

4차 산업 혁명이 현재의 삶의 방식을 혁명적으로 뒤흔들게 된다면 인간의 삶의 방식과 모습은 어떻게 변화해나갈까?[13] 과연 그것은 정말 우리가 바라던 유토피아일까? 아니면 그 정반대인 디스토피아(dystopia)

1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17), 78-82. 4차 산업혁명은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첨단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완전한 인간을 더 뛰어난 '강화인간(Enhanced Human)'으로 만들자는 사회운동이다.

www.kci.go.kr

일까? 무엇보다 고도의 과학기술 덕분에 생활환경 측면에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삶에 대한 만족도까지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외적인 삶의 조건은 충족되었지만 내적인 부분은 그에 못 미치기에 오히려 허무감(헤벨)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기술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기술에 적응되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되어 절망감에 빠질 수 있다. 또한 기계 및 디지털화로 말미암아 사회가 더 개인화됨으로써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 결국 사람은 심한 고립감에 처함으로써 사회적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회는 현대화되어 편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사회적인 관계성의 질이 떨어지는 양상이 전개된다. 결국 이것은 삶의 허무함으로 이어져 각종 중독에 빠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삶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과학 기술의 도움으로 고통과 결핍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결핍의 충족을 희구하는 종교도 그 가치를 상실하여 소멸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14] 이처럼 기존의 공동체 윤리의 종교가 과거에 가졌던 의미를 잃은 상황에서 위기를 타개할 신뢰할만한 새로운 관계적 구심점 혹은 윤리적 중심이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인간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무감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을까?

구약 성서 가운데 전도서는 유일하게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물음을 탐구하면서 전통적인 지혜에 의해 약속된 모든 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가를 살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도서는 아주 독특하게 시작하는데 저자가 허무주의자

14 오준호, 「2050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서울: 이학사, 2020), 203.

www.kci.go.kr

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 분위기가 염세적이다(전 1:2).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인간의 삶이 헤벨(헛됨)이라는데 있다. 그는 반복해서 자신이 해 아래서 관찰하는 모든 것들이 헤벨이라고 말한다.[15] 그는 인간의 삶이 예견이나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변수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아무리 많이 관찰한다고 해도 결코 항구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삶속에서 나름 의미를 찾으려는 강한 충동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생명의 샘(원천/기원)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인간 창조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즉 인간의 기원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누구와 닮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때 하나님의 형상(צֶלֶם/첼렘/image)과 모양(דְּמוּת/드무트/form)이란 개념은 빼놓을 수 없다(창 1:26). 이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서술한 베스터만(C. Westermann)은 사람은 그의 인간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갖게끔 창조되었다고 주장한다.[16] 실제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질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신성일 수도 있겠다(시 82:6; 요 10:34).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도 하나님(אֱלֹהִים/God)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비록 불완전하지만(선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신성의 가능성을

15 홍성혁, "전도서 속에 나타난 '헤벨'의 아이러니와 그 수사적 기능", 「구약논단」 42집 (2011년 12월), 36. 홍미롭게도 저자는 헤벨을 '종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헤벨은 인간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긴장과 모순으로 대변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만 해소될 수 있는 '종잡을 수 없는 현상'을 시사한다. Thomas, Bolin, "Rivalry and Resignation: Girard and Qoheleth on the Divine-Human Relationship." *Biblica* 86 (2005): 246-247. 비영속적인(impermanant) 헤벨(헛됨)은 영속적인(permanant) 올람(영원)과는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다. Lisa Michele, Wolfe, *Qoheleth/Ecclesiastes* (Wisdom Commentary; Liturgical Press, 2020), 45ff. 저자는 여성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낱말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전도서에 적용하고 있다.

16 C. Westermann, *Genesis* BK 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9), 203-218

www.kci.go.kr

암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창조 기사는 시간의 창조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그 문맥에 따르면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시간 밖에 있다가 창조된 시간 안으로 들어와 활동을 시작하였다.[17]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시간보다 상위개념인 영원과 더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그가 자신의 대리인으로 인간을 땅에 세웠다는 것(창 1:28)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인간이 무제한적인 존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인간이 영원성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면 인간은 불가불 영원함을 인식하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인간을 빚고(יָצַר/야차르/form) 그 코에 생기(רוּחַ/루아흐)[18]를 불어넣었다는 표현(창 2:7; 전 3:21)에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소프트웨어(DNA/intelligence)가 인간의 몸에 새겨졌다고 말할 수 있다(욥 32:8).[19] 창세기 2장 7절은 문학적으로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빗대어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과학기술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사람 안에다 하나님(programmer)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포맷(format)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다면 불가불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하나님의 활동을 배제한 인간의 삶은 자연스럽게 안이 텅 빈 공허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간이 삶의 헤벨을 이토록 예민하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 그들이 단순히 행동하는 것

17 김용규, 윗글, 75. 시간이란 변화하는 사물과 사건 사이의 관계다. 그러므로 사물이 아직 없는 곳에는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을 아우구스티누스는 "피조물이 생겨나지 않는 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다.

18 하경택, "전도서의 인간론에 대한 소고", 「Canon & Culture」 제18권 (2024년 4월), 52, 각주 51, 31-58. 구약성경은 몸과 영혼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총체적이며 전인적인 인간관을 보여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폴 투르니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강주헌 옮김), (서울: 포이에마, 2013), 149. 원제는 Paul Tournie, *LE PERSONNAGE ET LA PERSONNE*, (Paris: Delachaux & Niestle, 1989). 영을 받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인간은 실제 인간이 된다.

19 Benno Jacob, *Das Buch Genesis* (Stuttgart: Calwer, 2000), 84.

www.kci.go.kr

이상의 어떤 것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함에 대한 감각을 심어두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전 3:11). 이에 쉴라이어마허(F. Schleiermacher)는 이것을 소위 절대의존의 감정이라고 표현하였다.[20] 이렇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 안에 영원(עוֹלָם/올람)[21]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표준 새번역은 이 낱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나아가 공동번역은 이것을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이라고 번역한다.

---

20 이승현, "쉴라이어마허의 인간이해에 대한 소고", 「대학과 복음」 제5집 (2001년 10월), 126. 121-142. 절대의존의 감정이란 본질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공존(co-presence)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절대의존으로부터 추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근원자로부터 절대의존이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이미 주어진 것을 현존하는 것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즉 자아가 무한자에게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라 무한자가 자아에 관련을 맺는 것이다.

21 오민수, "전도서 3:10-15의 동사 구문론과 의미론적 접근", 「성경원문연구」 제48호 (2021년 4월), 100. 93-123. 각주 15. 저자는 '올람'이란 낱말에 대한 예니(E. Jenni)의 연구 결과를 수용한 학자들의 견해를 이렇게 종합한다: "그의 연구 이후 학자들은 '올람'이란 그리스적 개념의 초시간적인 '영원성'이나 세대로 구조화시키는 철학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으로 과거로도 미래로도 향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지만, '올람'의 시간은 계산하기 어려운 '가장 먼 시간'(die fernste Zeit)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인다." 김상기, "전도서 3:11의 문장구조에 따른 올람 이해", 「성경원문연구」 제31호 (2012년 12월), 63. 올람을 시간 개념으로 해석하는 오민수와 달리 저자는 그 낱말의 기능과 기원 및 특징을 모두 고려할 때 올람은 명감각(冥感覺: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감응하는 인식 능력)으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요한 영식, 「코헬렛의 지혜와 즐거운 인생」 (서울: 성서와 함께, 1997), 144. 저자는 문맥을 고려하여 3장에 나오는 '정해진 시간'(עֵת/에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볼 때, 한정된 시간을 사는 인간이 포착할 수 없는 영원한 영역에 속하는 것, 곧'영원히 지속되는 그 무엇'이라고 주장한다. 자끄 엘룰, 「존재의 이유」 (박건택 옮김) (서울: 규장각, 2005). 221. 원제는 Jacques Ellul, *LA RAISON D'ÊTRE* (Paris: Les Editions Du Seuil, 1987). 자끄 엘룰도 올람을 '감추다'란 개념과 연결시킨다. 즉 영원이란 인간이 모르는 것, 말하자면 감춰진 시간이나 활동일 뿐만 아니라 감춰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활동과 손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대립적이다. Milton P. Horne, *Proverbs-Ecclesiastes* (SHBC 12; Macon,GA The Smyth & Helwys, 2003), 428. 어근에 따라 과거와 미래(올람)로 번역된 이 낱말은 숨겨짐, 어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Stuart Weeks, *Ecclesiastes and Sceptcism* (London: T&T Clark, 2012), 99. 전도자는 7장 12-14절에서 미래가 숨겨진 것을 하나님의 의도적인 방책으로 돌린다.

www.kci.go.kr

그 만큼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무언가 사라지지 않고 영속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갈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유한한 인생을 살수 밖에 없으니(시 90:10) 거기서 그는 모순적인 갈등, 즉 허탈감을 느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헤벨(헛됨)같은 용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 삶의 참된 의미가 시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세계 바깥으로부터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암시를 준다.

한편 사람들은 흔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수고로운 인생을 사나!'하고 탄식한다. 이것은 인생의 고단함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운명론 또는 숙명론, 소위 팔자타령에 묶어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빈자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자들의 인생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다. 나아가 이제 사람들이 막상 나이가 들어보니 인생의 허무함이 더 가깝게 다가온다. 여기서 어떻게 참 이트론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전도자 또한 나이가 든 사람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인생이 남보다 조금 낫게 보이지만 그 또한 허무함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도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기술로 세상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그 이상의 것이 보이지 않으니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인식해야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이에 전도자는 삶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그는 삶을 소중히 간직해야할 하나님의 선물(מַתָּת)로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삶의 무의미성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전 2:24; 3:13). 즉 인생을 보는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다.[22] 전도자는 해 아

22 Arthur. Keefer, "The Meaning of Life in Ecclesiastes: Co-herence, Purpose, and Significance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Harvard Theological Review* 112 (2019): 465-466.

www.kci.go.kr

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고백하는데, 그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해 위를 바라본다. 바로 인간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이에 하나님 경외는 종잡을 수 없는 사태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신비, 불가해성, 그리고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23] 그 결과 그는 마침내 성서가 말하는 지혜의 기본 전제에 도달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전 12:13). 그러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전도자는 과학기술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고한다.

2) 노동에 대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고용 안전성과 장기 근속이라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모든 노동자가 계약직이 될 수 있는 온디맨드(On-Demand)경제[24]로 변화된다. 일손부족을 해소하는 기술은 실업을 가져오는 기술이기도 하다. 실제로 독일에서 2011년 시행했던 인더스트리(Industrie) 4.0도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일손 부족을 지나치게 해소하게 되면 이번에는 일손이 남아도는 사태를 초래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045년경에는 전체 인구의 10퍼센트만이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한다.[25] 이렇게 기술과 결합된 자본주의는 상당수의 노동자를 일자리에서 몰아낼 것이다. 이런 포스트 휴먼 경제가 가속화되면 사회는 일하는 극소수와 일자리를 잃은 대다수로 양극화된

23 홍성혁, 윗글, 51.

24 이것은 모바일 기술 및 IT 인프라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그런 예로 차량을 소유한 개인과 차량이 필요한 개인을 스마트폰 앱 하나로 연결하는 미국의 우버(Uber)가 그런 혁신적인 모델로 꼽힌다.

25 이노우에 도모히로, 윗글, 157.

www.kci.go.kr

다. 벌써 세계도처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자본주의체제에서 일이 없는 사람은 빈곤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미래의 포스트 휴먼 경제에서는 일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본임금을 주는 정책을 제안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기본 소득제도는 수입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별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내가 하고 싶은 바로 그 일이 나의 노동이 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노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의 자유시민처럼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노예, 즉 기계나 로봇이 있기 때문이다.[26] 이것이 기본소득 제도를 통한 노동과 여가의 일치이다. 그러면 이 기본소득이 사람에게 참 이트론을 제공할까?

하지만 이것은 인간과 노동에 대한 단세포적인 사고다.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궁핍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점점 삶의 권태에 빠져 각종 중독의 위험에 빠지는 것이다. 중독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바이러스나 물질적 궁핍이 원인인 병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 가운데서도 발생하는 인간 특수의 시간적 질병이다.[27] 중독이란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라는 시간과 관계가 절연된 상황, 말하자면 절망적 상황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좋은 조건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기획하고 노동을 통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지면 사람은 권태감에 빠지고 절망하게 되어 중독이란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망가지고 인격이 황폐화되는 치명적인 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감염된 사회는 결국 붕괴될 수밖에

26 김성동, 윗글, 297.

2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 연구센터, 윗글, 42.

www.kci.go.kr

없다. 따라서 맹목적으로 효율성에 집착해 인간을 일자리에서 몰아내는 미래의 포스트 휴먼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수 있는 노동의 딜레마이다.

한편 전도서는 다음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이트론)한가?(전 1:3). 실제로 모든 인간의 수고는 이득(이트론)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전 6:7).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인간, 즉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노동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기자는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노동에 대해 아말(עָמָ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인간 활동의 끊임없는 반복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노고에 해당한다(창 3:17; 5:29). 전도자는 자신의 부단한 노동활동을 통해 얻은 즐거움들의 범위와 한계를 모두 관찰한 후에 그것을 헤벨이라고 말한다(2:11). 그러면서 그는 자세를 바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삶의 기본적인 활동들 —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것 — 을 즐기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한다. 하지만 이처럼 삶을 즐기는 태도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한 활동들을 선물로 주셨다는데 있다.[28]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만족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자신의 노동 속에서 선한 것, 즉 참 이트론을 발견할 수 있다. 전도자와 유사하게 시인 또한 하나님의 활동을 배제한 사람의 수고는 공허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다(시 127:1-2).

이렇게 전도자에 따르면 노동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인데 과연 노동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우리는 그 기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았는가? 노동에 대한 어원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그에

28 Stuart Week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Ecclesiastes* (London: T&T Clark, 2020), 467.

www.kci.go.kr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29] 이것은 부지불식간에 노동은 되도록 피해야할 그런 활동으로 보는 것이다. 전도자 또한 노동을 'עָמָל(아말)'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30] 따라서 노동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기원을 보다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노동에 대해 말할 때 선악과 사건과 연결시킨다(창 3장). 이에 따르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그 대가로 사람이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땅이 원하는 대로 쉽게 소출을 안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땀을 흘려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노동은 알게 모르게 저주의 산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것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알고 있듯이(창 5:29), 노아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는 이 아들이 안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지 않았는가! 라멕 또한 조상들이 자신에게 전해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을 텐데, 유독 이 부분만을 강조한 것을 보면 땅에 대한 이 저주 사건이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노동의 기원을 더 알기 위해서는 선악과 사건 이

29 윤 형, "노동의 기원", 「Canon & Culture」 6권 1호 (2011년 11월), 71. 그것은 다음과 같이 여러 나라들의 노동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희랍어 *ponos*(당나귀의 짐), 라틴어 *labor*(짐을 지고 비틀거림, 쓰라린 고통, 병), 중세 고독일어 *arebeit*(쓰라린 고통), 불란서어 *travail*(중세 라틴어 *tragaltare*-말의 다리를 묶음) 혹은 러시아어 *rabota*(고대 교회 슬라브어인 *rabu*-노예) 등. 그런데 노동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일반적으로 힘든 육체노동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노동은 일반적으로 하층민들에게 부과된 오로지 육체적이며 고생스런 행위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그 낱말은 고통, 고난 그리고 무거운 짐 등과 동의어가 되었다.

30 윤 형, "Arbeit und Herrschaft in der biblischen Urgeschichte", *Dissertation* (Bochum: Ruhr-Universität, 2010), 61. Michael V. Fox, *Ecclesiaste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 commentary (Philadelphia: JPS, 2004), 22, 전도자는 살기 위해 꼭 필요해서 하는 행위인 עָשָׂה(아사/doing)와 עָמָל(아말/수고/overdoing)을 구별한다. Eunny P. Lee, *The Vitality of enjoyment in qohelet`s theological rhetoric* (Berlin: de Gruyter, 2005), 59-60. 저자는 이 낱말(아말/toil)을 전도서의 수사학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www.kci.go.kr

전에는 이 노동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노동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위해 갖고 있었던 계획이었다(창 2:5)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창조된 이후에는 실제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창 2:15). 그런데 이 노동이 힘들어진 것은 그 이후, 즉 선악과 사건 이후이다. 따라서 정경적인 문맥으로 본다면 원래의 노동은 힘듦과는 거리가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공적인 관개시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에덴동산 주위를 흐르고 있는 강은 그야말로 천연의 관개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창 2:10-14). 따라서 본래의 긍정적인 노동의 본질과 불가피하게 노동현장(땅)에 부과된 저주로 말미암아 생겨난 부정적인 노동조건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할 것이다.[31] 한 걸음 더 들어가 이 노동의 기원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도 일하신다'라는 대전제에 도달한다.[32] 왜냐하면 하나님 또한 천지창조라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하나님 또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그것을 증명한다(창 2:3). 그럴 경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모방(mimesis/모방)하여 자기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런 일련의 노동의 생성과정을 볼 때 사람이 하는 노동은 단순히 무엇을 수행하는 활동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동을 본받는 일종의 신성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도록 동력을 제공한다.

전도자는 자신의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 이미 이트론이 해 아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2:11), 인간의

---

31 윤 형, 윗글, 7-8. 즉 본문의 정경적인 문맥(창세기 1-2-3장)을 고려하여 노동의 본질과 그 조건을 분리시켜 생각해야 한다.

32 윤 형,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재고찰", 「구약논단」 50집 (2013년 12월), 138.

www.kci.go.kr

유한한 이트론과 해 위에서의 하나님의 영원성이 서로 연결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서는 무엇보다 인간의 노동에 대해 본질적으로 신성성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또한 노동하는 존재이고(창 1장) 그의 피조물인 인간은 본질적으로 노동을 하게끔 창조되었기에(창 2:5, 15) 노동은 무의식적인 기본 행위이다. 이런 노동의 신성성을 인식해야 진정한 노동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아가 과학기술 시대가 제기하는 노동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디지털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정부를 비롯한 책임기관은 사회 내에서 창의적인 아날로그적 노동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노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도서는 사람이 노동의 신성성을 인식하면서 노동 행위에 임할 때 노동의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3) 죽음에 대하여

죽음이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삶의 과정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사람은 그 죽음이 두렵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관계가 단절되며 하려면 할 수 있는 인간행동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죽음은 삶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무로 돌려버린다. 더욱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그 세계에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전 9:10). 이렇게 보면 죽음은 사람이 반드시 정복해야 할 마지막 적으로 보인다(고전 15:26). 그런데 마침내 인간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통해 그 동안 시달려왔던 질병, 나아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기술 및 빅데이터 분석기법은 죽음의 원인인 질병을 예축 및 진단하

www.kci.go.kr

고 나아가 치료까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있다.[33] 특히 유전자 편집(CRISPR) 기술[34]로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 또는 노화세포를 제거 및 재생시키거나 장기 3D 프린팅을 통해 몸의 장기를 인공장기로 대체하고 수많은 질병을 정복하고 나면 인간의 수명은 엄청나게 연장될 수 있다. 그리고 공상과학영화를 통해 보듯이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두뇌활동과 기억이 운명적으로 지니고 태어난 생체를 떠나 물리적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로 옮겨질 수 있다면 인간의 운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즉 이것은 뇌를 스캔하고 디지털화하여 의식을 저장하거나 이식하려는 시도인 디지털 불멸성(Digital Immortality)[35]으로서 이런 포스트 휴먼이 출현하면 인간은 더 이상 죽지 않는다.[36]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 생물학적 수명을 다해 소멸되더라도 두뇌로 실행되는 의식적 삶을 다른 컴퓨터로 업로드(upload)해 가며 영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리적인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기억과 자아의 모사를 통해 죽음을 넘어서려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밖에 기계와의 융합도 있는데, 인공장기 및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기술발전으로 인간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를 기계화시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이런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경제

---

3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 연구센터, 윗글, 329. 요즈음 의료 트랜드는 3P라고 한다: 예측(Predictive), 예방(Preventive), 개인맞춤형(Personalized). 여기에 2030년경에는 기능향상(Promotion) 요소가 추가될 예정이다.

34 김정미 양혁준 공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축복의 도구일까」 (고양: 글라이더, 2021), 98-119. 유전자 가위라는 도구는 흔히 생각하듯이 물리적인 가위가 아니라 단백질이다. 이것은 표적 DNA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가이드 RNA와 안내한 그 부분을 잘라내는 카스나인(Cas9)이라는 단백질로 만든 분자효소 가위이다. 정유경 배상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가져온 '유전자 교정시대'", 「화학세계」 (2023년 3월), 9-15.

35 사람의 기억, 인격, 행동패턴을 디지털로 저장하거나 모방하려는 시도이다.

3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 연구센터, 윗글, 321-327. 포스트 휴먼 시대는 물질-생명-기계의 혼종인 사이보그들의 시대이다. 포스트 휴먼 기술은 인간과 기술을 융합해 인간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을 보완하거나 강화시키는 기술 분야를 총칭한다.

www.kci.go.kr

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자연적 생체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생명과학의 발전방향과 원칙에 대해 나름의 사회적, 윤리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 말하자면 과학기술 발전의 혜택을 강조하는 입장과 그에 대한 윤리적 통제를 주장하는 입장 사이에 심각한 긴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측의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과연 이런 방법으로 죽음을 없애고 영생을 얻은 미래는 어떨까? 이것은 인간의 미래와 관련하여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서 이에 대한 폭넓고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아마 미래는 인간의 육체와 죽음의 상관관계에서 드러나는 그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다시 전망되고 재설계되어야 할지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죽음에 대한 이런 전망은 사람에게 참 이트론을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성서의 전도서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삶에 참된 의미(이트론)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죽음의 기원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죽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죽음은 어디서 왔을까? 일반론에서는 이에 대한 대답은 모른다는 것이다. 죽음은 당연히 인생에서 겪는 삶의 한 과정일 뿐 그에 대해 이런 저런 질문을 할 수는 있었으나 본질에 대해서는 도대체 답을 구할 수 없었다. 이에 죽음의 인과관계에 대해 그냥 모르는 채 우리는 죽음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인물들도 죽으면 열조에게로 돌아갈 뿐이었다(창 25:8; 35:29). 그 이상은 없다. 그에 대한 질문도 없다. 그러면 죽음에 그 기원적인 출처가 있단 말인가? 정경적인 관점에 따르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이 그것이다(창 2:17). 아담과 하와는 그에 대한 금지명령을 어긴 대가로 죽음이란 반대급부를 받은 것이다. 생명나무에 대한 금지명령은 없었으니 만약 선악과만 안 먹었다면 사람은 원래

www.kci.go.kr

죽지 않고도 계속 살 수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도 이것을 먹을 수 있었다면 사람은 살 수 있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를 향한 그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놓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창 3:22-24). 이것이 죽음의 기원이다. 만약 성서에 나온 대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 수만 있다면 사람은 다시 생명나무를 먹고 계속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다. 논리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죽음의 기원을 알았기에 이제 죽음의 의미를 보다 밝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전도자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확실한 것은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닥치는 공통된 운명이라는 것이다(전 9:2/מִקְרֶה אֶחָד/미크레 에하드[37]). 그가 도덕적으로 어떤 품성을 지닌 것과 관계없이 말이다. 이에 그는 죽음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짝을 이루는 대립 낱말을 이용한다: 의인과 악인, 선인과 죄인 등(전 9:2). 이렇게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끝이다. 그곳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그래서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다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이 일리가 있다(전 9:4). 여기서 우리는 전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죽음을 앞에 둔 삶에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즉 독자에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지금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라고 권고한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장래 일을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먹고 마시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전 2:24; 3:13; 5:18; 8:15; 9:7,10). 왜냐하면 삶 자체가 하나

37 이은애, "헤벨(hebel)과 죽음에 대한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관성", 「구약논단」 94집 (2024년 12월), 292. 미크레는 본래 관련된 사람의 바람이나 도움 없이 스스로 발생한 사건(occurrence) 또는 운명(fate), 운(fortune)을 가리키지만 이 본문에서는 최후의 운명, 즉 죽음을 의미한다(전 2:15; 3:19; 9:2-3).

www.kci.go.kr

님이 주는 선물이기에 삶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충분히 향유하라는 것이다. 즉 죽음이라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38]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죽음을 직시하면서(memento mori) 현재의 생활에 충실하는 소위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39] 그러므로 전도자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일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죽음을 변증법적으로 해석한 이트론이 된다고 보았다.[40] 이렇게 전도자는 반복적으로 죽음의 불가피성이라는 시각을 갖고 해 아래에서의 삶을 관찰한다.[41] 그러면 정말 죽음 자체에는 이트론이 없는가? 이에 다른 한편으로 그는 죽음이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문제들을 직시하게 하는 까닭에 상대적인 유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자신의 죽음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생각으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자는 반복해서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지금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좋은 유익들(이트론/먹고, 마시고, 일하고)을 붙잡을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

38 차준희, "무덤에서 나온 지혜: 전 9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구약논단 37집 (2010년 9월), 212.

39 구자용, "죽음-그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실존: 구약 성서적 창조와 지혜전승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고찰",「구약논단」49집 (2013년 9월), 365.

40 장일선, 윗글, 211. C. L. Seow,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97), 305-306. 길가메쉬 서사시(M iii 6-14/ANET[3] p.90)와 전도서(9:7-10)의 배열순서가 같다는 점이 흥미롭다: 연회-의복-머리-가족. Davis Hankins, "The Internal Infinite: Deleuze, Subjectivity, and Moral Agency in Ecclesiastes." *JSOT* 40 (2015), 57-58.

41 구자용,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엠(Carpe diem)! 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의 죽음에 대한 고찰", 91. 전도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의 노래(전 1:4-11)에는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영원한 땅과의 대조를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유한한 모습과 어떤 것도 새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후대에 의해 기억됨도 없는 그의 모습에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에게는 결정적인 죽음이 역시 암묵적으로 전제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따라서 그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삶의 질이지 그것의 길이가 아니다. 말하자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수명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전 6:6). 이렇게 그는 관찰의 범위를 넓혀 해 위에[42] 있는 하나님과 해 너머에 있는 죽음을 포함시킨다(전 12:1-8).

이제 결론에 도달한 전도자는 도대체 해 아래에서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죽음을 유신론적인 세계관의 시각에서 재해석한다. 무엇보다 인간은 결정적으로 죽음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기에 자신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43] 이에 창세기 2장 7절과 3장 19절을 언급하면서 그는 사람이 죽을 때에 불가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한다(전 12:7). 요컨대 인간은 다른 모든 짐승이 죽는 것처럼 죽어야 하는 단순한 물질적 유기체가 아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이트론에 대한 전도자의 희망이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음을 암시한다.[44] 전체적으로 전도자는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의 지혜에 이의를 제기한다. 물론 그는 그 지혜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것의 한계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

---

42 본문에 해 위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지만 전도자는 전도서 12장에 들어가 창조주를 제시함으로써 광명체를 창조한(창 1장)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해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3 윗글, 99. 창조로부터 설정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지 못한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의미를 갖는 하나님의 이 주권성은 둘 사이를 분명히 구분 지으며 인간에게 '결정적인 죽음'의 모티브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하경택, "코헬렛의 마지막 교훈(전 11:9-12:7)으로 보는 전도서의 신학", 「구약논단」 27집(3) (2021년 9월), 82-83.

44 죽음에 대한 전도자의 대부분의 생각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사상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결론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이야기한다. 이것은 일견 모순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전자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결국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창 2:7)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전도자로서는 후자도 언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www.kci.go.kr

울이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45]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죽음도 인간에게는 하나의 분명한 한계다.[46] 따라서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본 결과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집어 삼키는 듯한 그런 죽음도 그 기원과 의미를 알게 되면 과학기술을 통한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죽음도 우회해서 초월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전도서는 암시하고 있다.

4. 나가는 말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살면서 항상 자신을 살게 만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한다. 따라서 삶의 의미, 가치를 상실할 때 사람은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간의 삶은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며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질적인 실존현상이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져도,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강국이어도, 또 IoT(Internet of Things),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미래사회가 도래해도 그 사회가 삶의 의미와 질적 가치를 창조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면 인간의 삶은 허무할 뿐이다. 역설적으로 인간의 편의를 최대로 충족시켜주는 현대기술

45 배정훈, "전도서에 나타난 잠정적인 지혜", 「구약논단」 17집(4) (2011년 12월), 26. 전도서 기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음 앞에 선 회의주의가 아니라 수정된 지혜를 통하여 삶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4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 연구센터, 윗글, 21. 우리는 과학기술을 성공적으로 제품화하여 시대의 아이콘이 된 스티브 잡스(Steve Jobs)의 스탠퍼드 대학 졸업연설을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 죽음이 없는 포스트 휴먼을 꿈꾸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과 달리 그는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또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 죽음이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진규, "코헬렛의 죽음에 대한 관점 연구", 「구약논단」 95집 (2025년 6월), 133. 코헬렛은 기존의 전통적인 죽음관을 수정한다.

www.kci.go.kr

시대에 오히려 인간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47] 이런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비록 전도서 기자의 삶의 자리와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정황이 다른 것 같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정서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48] 삶은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노동을 어떻게 인식해야 노동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음을 인식해야 죽음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전도서 기자 또한 삶의 공허함, 노동의 의미, 그리고 죽음의 딜렘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첨단과학기술이란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이트론의 추구, 즉 삶의 편의성, 노동의 효율성, 그리고 죽음의 극복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비록 오래된 문헌이지만 인식론적 차원에서 전도서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도서

---

47 박찬국 외, 「제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사회윤리」 (파주: 아카넷, 2017), 108. 재인용, 하이데거(M. Heidegger)는 현대 기술이 인간의 존재 이해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았다. 기술이 노동현장에서 인간을 밀어냄으로써 인간은 심한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48 Ludger Schwienhorst-Schönenberger, *Kohelet* (Freiburg: Herder, 2011), 108-109. R.N. Whybray, *Ecclesiastes* (Sheffield: JSOT, 1989), 8-10. 다니엘 에스테스, 「지혜서와 시편 개론」 (강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7), 377. 원제는 Daniel J. Estes, *Handbook on the Wisdom Books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5). 전도서에 나온 여러 가지 표현이나 상황들에 따르면 사회 분위기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때라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이에 전도서가 헬레니즘 시대, 곧 그 일대가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의 지배를 받던 시대(B.C. 282-246)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장일선, 「삶을 위한 지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83. 이 시기는 전쟁도 없고 정치적 불안도 없는 비교적 안정된 시기로 희랍문화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다. Annette Schellenberg, *Erkenntnis als Problem: Qohelet und die alttestamentliche Diskussion um das menschliche Erkenn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2), 37. 전 철, "칼 구스타프 융의 동시성 개념 연구: 융의 동시성 개념과 시공간의 문제의 과학 신학적 함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68(1)집 (2010.4), 167, 171-172. 181. 융(Carl Gustav Jung)에 의하면 동시성은 어떤 두 사건들이 동시적으로 한 인격을 향해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의미 있는 일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뜻하는 개념이다.

www.kci.go.kr

가 비록 허무감(헤벨)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비슷한 정황에 처한 우리에게도 시의적절한 대답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 향후 우리 앞에 전개될 고도의 과학기술 사회는 사람에게 행복한 열매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우선 삶의 딜레마에 관한 것으로 모든 생활조건이 편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서도 삶의 허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전도자는 삶을 소중히 간직해야할 하나님의 선물로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삶의 무의미성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노동 문제인데 노동은 인간의 본질적인 과제로서 과학기술을 통해 이것을 지나치게 줄이면 여가 중독이라는 치명적 질병에 걸리기 쉽다. 이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노동의 신성성을 통해 노동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인식해야 그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딜레마로서 첨단 과학기술로 죽음을 아무리 연장해도 그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이에 전도서는 그 죽음도 하늘로 차원을 높여야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아주 오래 전에 기록된 전도서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 아래와 해 위를 보면서 지혜롭게 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참고문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 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간의 미래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17).

구자용,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엠(Carpe diem)! 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의 죽음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18집(1) (2012년 3월), 82-104.

김상기, "전도서 3:11의 문장구조에 따른 올람 이해", 「성경원문연구」 제31호(2012년 12월), 57-67.

김성동, 「4차 산업혁명과 인간」 (고양: 연암서가, 2018).

www.kci.go.kr

김진규, “코헬렛의 죽음에 대한 관점 연구”, 「구약논단」 95집 (2025년 6월), 123-157.

김창대, “전도서에서 헤벨과 신중한 삶”, 「장신논단」 50집(5) (2018년 12월), 39-66.

김순영, “전도서의 일상과 노동의 관점, 전도서 2:18-26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2집 (2018년 4월), 22-44.

김정미 양혁준 공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축복의 도구일까」 (고양: 글라이더, 2021),

반성택, 김종규, 「4차 산업혁명의 도전」 인문학의 응전 (고양: 학고방, 2020).

박요한 영식, 「코헬렛의 지혜와 즐거운 인생」 (서울: 성서와 함께, 1997).

박현길, “IT기술의 두 얼굴”, 「마케팅」 51집(10) (2017년 10월).

배정훈, “전도서에 나타난 잠정적인 지혜”, 「구약논단」 17집(4) (2011년 12월), 10-32.

오민수, “전도서 3:10-15의 동사 구문론과 의미론적 접근”, 「성경원문연구」 제48호 (2021년 4월), 93-123.

오준호, 「2050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서울: 이학사, 2020).

이승현, “쉴라이어마허의 인간이해에 대한 소고”, 「대학과 복음」 제5집 (2001년 10월), 121-142.

이은애, “헤벨(hebel)과 죽음에 대한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관성”, 「구약논단」 94집 (2024년 12월), 282-310.

윤 형, “노동의 기원”, 「Canon & Culture」 6권 1호 (2011년 11월), 69-95.

자끄 엘룰, 「존재의 이유」 (박건택 옮김) (서울: 규장각, 2005). 원제 Ellul Jacques, *LA RAISON D'ÊTRE* (Paris: Les Editions Du Seuil, 1987).

장일선, 「삶을 위한 지혜. 히브리 지혜문학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년).

정유경 배상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가져온 ‘유전자 교정시대’”, 「화학세계」 (2023년 3월), 9-15.

차준희, “무덤에서 나온 지혜: 전 9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 「구약논단」 37집 (2010년 9월), 196-217.

클라우스 슈밥,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옮김),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원제 Schwab Klau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rown Currency, 2017).

폴 투르니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강주헌 옮김), (서울: 포이에마, 2013). 원제 Tournie Paul, *LE PERSONNAGE ET LA PERSONNE* (Paris: Delachaux & Niestle, 1989).

하경택, “코헬렛의 마지막 교훈(전 11:9-12:7)으로 보는 전도서의 신학”, 「구약논단」 27집(3) (2021년 9월), 72-103.

www.kci.go.kr

홍성혁, "전도서 속에 나타난'헤벨'의 아이러니와 그 수사적 기능",「구약논단」17집 (4) (2011년 12월), 33-56.

Bolin, Thomas. "Rivalry and Resignation: Girard and Qoheleth on the Divine-Human Relationship." *Biblica* 86 (2005): 245-259.

Fox, Michael V., *Ecclesiaste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commentary (Philadelphia: JPS, 2004).

Hankins, Davis. "The Internal Infinite: Deleuze, Subjectivity, and Moral Agency in Ecclesiastes." *JSOT* 40 (2015), 43-59.

Jacob Benno, *Das Buch Genesis* (Stuttgart: Calwer, 2000).

Keefer, Arthur. "The Meaning of Life in Ecclesiastes: Co-herence, Purpose, and Significance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Harvard Theological Review* 112 (2019), 447-466.

Lee, Eunny P., *The Vitality of enjoyment in qohelet`s theological rhetoric* (Berlin: de Gruyter, 2005).

Milton, Horne P. *Proverbs-Ecclesiastes* (SHBC 12; Macon,GA The Smyth & Helwys, 2003).

Schellenberg, Annette, *Erkenntnis als Problem: Qohelet und die alttestamentliche Diskussion um das menschliche Erkenn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2).

Schwienhorst-Schönenberger Ludger, *Kohelet* (Freiburg: Herder, 2011).

Seow, C. L.,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97).

Weeks, Stuart, *Ecclesiastes and Sceptcism* (London: T&T Clark, 2012).

Weeks, Stuart,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Ecclesiastes* (London: T&T Clark, 2020).

Westermann, C., *Genesis* BK 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9).

Whybray R. N., *Ecclesiastes* (Sheffield: JSOT, 1989).

Wolfe, Lisa Michele, *Qoheleth/Ecclesiastes* (Wisdom Commentary; Liturgical Press, 2020).

검색어

전도서, 제4차 산업혁명, 삶, 노동, 죽음

www.kci.go.kr

[ABSTRACT]

The Meaning of Lif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cclesiastes

Hyung You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members of society living in an era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that is becoming increasingly real. The content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cclesiastes, dividing it into three major categories. First, regarding the dilemma of life, even in an advanced society where all living conditions are convenient, a sense of futility in life is inevitable, and we looked for a way to escape this dilemma through the wisdom of Ecclesiast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cclesiastes states that we can escape the meaninglessness of life only by accepting life meaningfully as a gift from God that we must cherish. Second, regarding the dilemma of labor, labor is an essential task for humans, and if we reduce it excessively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we can easily develop a fatal disease called leisure addic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is matter show that we can escape this dilemma only b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labor through the sacredness of labor eve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rd, regarding the dilemma of death, even if we extend death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it can be meaningless. Accordingly, Ecclesiastes recommends that we can escape

www.kci.go.kr

this dilemma only by elevating death to the level of heaven. The research method is to recognize the theological community and to compare and examine the lif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Ecclesiastes from a canonical perspective based on the final text that we currently have.

key words

Ecclesiast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ife, Work, Death

투고일 : 2025년 07월 17일
심사일 : 2025년 08월 25일
게재 확정일 : 2025년 09월 01일

www.kci.go.kr